신조선 수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세계 신조선 건조 수요량은 연평균 2000만~2200만총톤으로 최근 몇년간의 연간 건조량과 같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일본조선공업회에 의해 발표됐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조선산업계가 같은 시기의 연평균 건조수요량을 2420만총톤으로 일본 및 유럽보다 많게 예측, 조선 수급에 관한 공통인식 형성을 위해 95년10월 열린 한국·일본·유럽·미국 4자 조선정상회의에서 제시돼 그 존재는 이미 알려졌으나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예측대상 선박은 1만중량톤 이상의 탱커·벌커·겸용선(탱커와 벌커에 각각 50% 배분), 1만m2용적 이상의 가스캐리어, 5000중량톤 이상의 기타 화물선이다.
소형선·객선·어선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0총톤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로이드통계와의 차이는 170만총톤 정도이다.
건조 수요량은 스크랩량을 과거의 실적에 의거해 산출한 케이스 1, 서브스탠더드선 배제 진전을 고려한 케이스 2 등 2개 케이스에 대해 예측했다.
케이스 1의 연평균 건조수요량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1670만총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310만총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100만총톤이다.
케이스 2의 수요량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2180만총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130만총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90만총톤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10년동안 평균 건조수요량은 약2000만~2200만총톤으로 산출됐다.
최근 몇년간의 세계 수주량은 2000만총톤을 대폭 웃돌고 있는데, 실제 건조량이 이 예측치를 웃돌고 있는 상태는 중장기적으로 실수요 이상 건조하고 있는 것이 돼 2000년을 넘어가면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조선산업계는 95년이래 한국의 증설에 의한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2000년 전후의 탱커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한 수요의 대폭적인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일본조선공업회의 예측결과는 그같은 비관론의 근거가 돼 왔다.

<화학저널 1996/12/9>